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계열 대학생의 HIV/AIDS와 B형 간염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이형숙** · 박해나*** · 김건희*** · 김미리*** · 김민지*** · 김빛나*** · 김은경***
김은영*** · 김진희*** · 성혜진*** · 송미선***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내에서 1987년 후천성면역결핍증(Human Immunodeficiency Viru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HIV/AIDS)환자가 발생한 이래 HIV 감염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부터 급증하여 2013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1013명이 되었으며, 최근 10년 간 총 누적감염인수는 8967명에 달한다(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KCDC], 2014). HIV/AIDS의 감염경로로는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99%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3년도 HIV/ADIS 감염인의 50.7%가 20대와 30대로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다(KCDC, 2014). HIV/ADIS의 잠복기가 길다는 것을 고려할 때 성행동이 활발한 이 시기의 감염인이 자신의 감염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타인과의 성접촉으로 인한 연쇄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며, 1990년대 중반 HAART (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herapy) 치료법 도입 이후 HIV 감염 환자들의 생존률이 높아져 보건의료비용의 손실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Sohn, Florecil, Moon, & Ko, 2009).

유엔에이즈계획(United Nations Program on HIV/AIDS: UNAID)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HIV/AIDS를 급성질환이 아니라 '관리될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 정의하고 이에 준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있다(UNAIDS & WHO, 2003). 그러나 이 같은 정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HIV/AIDS에 대한 지식과 신념을 조사한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에서 '죽음, 사망, 불치병, 무섭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 에이즈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이에 따르는 막연한 공포심과 부정적인 시각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CDC & Korea Federation for HIV/AIDS Prevention, 2010). 이러한 인식과 시각은 HIV/AIDS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효과적이지 않게 하며, HIV/AIDS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초래한다(Sohn, Moon, Shin, Chun, & Kim, 2008).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HIV 감염자를 간호해

* 이 논문은 2015년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생학술대회 발표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조교수(교신저자 E-mail: leehyeongsuk65@gmail.com)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생

• Received: 16 September 2015 • Revised: 9 November 2015 • Accepted: 10 December 2015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Lee, Hyeong Suk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38 Ganhodaero-ro Seodaemun-gu, Seoul, Korea

Tel: 82-2-2287-1024 Fax: 82-2-2287-1701 E-mail: leehyeongsuk65@gmail.com

야 하는 전문 의료인으로써의 자질을 가져야 하므로 HIV/AIDS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대상자에 대한 태도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Ahn, Yoo, Park, & Kim, 2008)에서 HIV/AIDS 감염인에 대한 편견이나 태도가 KCDC와 Korea Federation for HIV/AIDS Prevention (2010)에서 조사한 일반인의 편견, 태도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대상자를 옹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하는 예비 간호인으로서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만성 간질환을 유발하는 주원인으로 HIV/AIDS와 같은 체액 및 혈액 매개성 질환이다. 만성 B형 간염은 간경변 및 간암 등의 질환을 유발하며 우리나라의 만성 간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전체 사망원인의 8위로 2013년 통계상 10만명당 13.2명이 간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3). 정부의 적극적인 예방접종으로 보유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2014년 법정전염병 발생보고에 따르면 사회의 주요 활동인력인 20-30대의 간염발생률이 전체 간염발생 환자의 46.2% 달한다(KCDC, 2015). 따라서, 향후 간암, 간경변증 등의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B형 간염 교육과 질병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HIV/AIDS와 B형 간염은 전파경로, 만성화 경향과 질환이 가지는 사회적 편견 등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HIV/AIDS와 B형 간염이 주로 젊은 층에 호발한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가장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고 감염성 질병에 대한 지식과 예방적 대처가 미흡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HIV/AIDS와 B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파경로와 증상, 간염의 경우 예방 백신의 접종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종사자들은 HIV/AIDS와 같은 혈액 및 체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등에 직업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높다. 병원에서 이러한 질환에 감염되는 일반적이고 가장 흔한 전파 경로는 환자의 오염된 혈액이 침막이나 상처에 접촉되거나, 주사바늘 또는 각종 날카로운 가구에 찔리는 사고에 의한 것이다(Oh & Choe, 2002). 이러한 손상으로 인한 감염의 위험도는 B형 간염바이러스가 6-30%, C형 간염 바이러스가 1-10%, HIV가

0.3%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B형 간염의 경우 노출 원인 제공자의 혈액이 e항원 양성인 경우에는 감염 가능성이 62%로 상당히 높다(CDC, 2001).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은 임상적 술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미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파경로를 통하여 혈액매개 질환의 감염 위험성이 높다(Park et al., 2010). Park 등(2010)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 76.5%, Kim과 Kim (2014)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 58.6%가 임상실습 도중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병원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Kim 등(2010) 연구에서 47.9%보다 높게 보고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HIV/AIDS 또는 B형 간염의 지식 및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계열 대학생을 비교한 Kim, Han과 Lee (2014), Ahn 등(2008)의 연구와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의학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ung (2008)의 연구가 있다. Sung (2008)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의학계열 대학생 중 에이즈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취약성에 대한 인지정도는 높으나 지식이나 태도에 차이는 없었으며, 대중매체를 통하여 HIV/AIDS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다고 답하였으나, 정보의 출처 역시 지식이나 태도에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Ahn 등(2008)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모두 TV에서 HIV/AIDS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얻으며, TV에서 정보를 얻는 학생들의 지식 점수는 높으나 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HIV/AIDS에 대한 교육 경험이나 정보출처에 따른 지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일정하지 않아 반복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며, 비교적 국내에서 발생률이 높은 B형 간염의 지식과 태도를 교육 경험이나 정보 출처와 같은 변수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특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Ahn 등(2008)과 Sung (2008)의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간호대학생의 경우 HIV/AIDS 또는 B형 간염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비교적 많으나, 비 간호계열 대학생의 경우 요구도에 비해 교육과정이나 강연 등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계열 대학생의 HIV/AIDS와 B형 간염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비교하고, 교육경험 및 정보입수 경로 외 B형 간염 항원/항체 유무 및 백신접종 상태와 임상실습을 수행한 간호대학생의 주사침 자상 및 혈액, 체액 노출 경험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에 따른 지식 및 태도를 파악하여 HIV/AIDS와 B형 간염의 지식 향상과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 목적

- 간호·비 간호계열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HIV/AIDS와 B형 간염 교육 경험 및 정보입수 경로, B형 간염 항원/항체 유무 및 백신접종 상태를 비교한다
- 간호·비 간호계열 대학생의 HIV/AIDS와 B형 간염의 지식 및 태도를 비교한다.
- 간호·비 간호계열 대학생의 교육경험에 따른 HIV/AIDS와 B형 간염의 지식 및 태도와, B형 간염 항원/항체 유무 및 백신접종 상태에 따른 B형 간염의 지식 및 태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HIV/AIDS 및 B형 간염에 대한 정보입수 방법에 따른 지식 및 태도를 파악한다.
- 임상실습을 수행한 3-4학년 간호대학생의 주사침 자상 및 혈액, 체액 노출 경험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HIV/AIDS와 B형 간염의 지식 및 태도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계열 대학생의 HIV/AIDS와 B형 간염의 지식 및 태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5년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서울, 경기 지역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계열 대학생(간호학과를 포함한 보건·의학계열이 아닌 전공의 일반대학

생)을 편의 표출하여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그룹 t-test분석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효과크기 .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일 때 각 그룹 당 105명씩 210명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계열 대학생 각 125명씩 250명을 목표로 하여 모바일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수집된 283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결과분석이 곤란한 32부를 제외하여 총 25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온라인 설문조사 제공 사이트인 서베이몽키(<https://ko.surveymonkey.com/>)의 웹링크를 통한 설문으로 원하는 시간에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 종료 후 무기명 처리된 데이터를 온라인 설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다.

4. 윤리적 고려

설문조사 시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연구 참여의 자율성과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 조사 내 연구 대상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 한하여 연구 참여 수락을 위한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5.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일반적 특성 3문항, HIV/AIDS에 대한 지식 및 태도와 B형 간염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각 25문항씩 50문항과, HIV/AIDS와 B형 간염 교육 경험 및 정보입수 방법 4문항, B형 간염 항원/항체 유무와 백신접종 상태와 관련된 3문항, 임상실습을 수행한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는 주사침에 의한 상해와 혈액과 체액에 노출경험에 관련된 문항 6문항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경우 총 63문항, 비 간호계열 대학생의 경우 총

57문항을 사용하였다.

1) HIV/AIDS에 대한 지식 및 태도

HIV/AIDS의 지식 및 태도 측정을 위해서 Sin과 Hong (1996)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im 등(2014)의 연구에서와 같이 간

호대학생의 전공지식으로 인해 정답률이 높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진단검사 2문항과 감염관련 문항1개를 제외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HIV/AIDS의 정의와 관련된 지식, 감염과 관련된 지식, 증세와 관련된 지식으로 총 19문항과 HIV/AIDS에 관련된 태도 6문항으로 총 25문항이다. HIV/AIDS 지식의 각 문항은 '맞다' 1점,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51)

Variables		Nursing college (N=123)	Non-nursing college (N=128)	x ²	p				
		N(%)							
Grade	First	18(14.6)	16(12.5)	30.468	<.001				
	Second	11(8.9)	37(28.9)						
	Third	29(23.6)	45(35.1)						
	Fourth	65(52.8)	30(23.4)						
Gender	Male	1(0.8)	40(31.2)	42.520	<.001				
	Female	122(99.2)	88(68.8)						
The states of HBsAg	Positivity	9(7.3)	11(8.6)	12.118	.002				
	Negativity	81(65.9)	57(44.5)						
	Unawareness	33(26.8)	60(46.9)						
The states of HBsAb	Positivity	51(41.5)	36(28.1)	10.722	.005				
	Negativity	30(24.4)	22(17.1)						
	Unawareness	42(34.1)	70(54.7)						
Vaccination against hepatitis B	Done	88(71.5)	65(50.8)	11.763	.003				
	Undone	14(11.4)	21(16.4)						
	Unawareness	21(17.1)	42(32.8)						
HIV/AIDS education	No	19(15.4)	34(26.6)	24.858	<.001				
	Yes, but not fully understood	64(52.0)	84(65.6)						
	Yes	40(32.5)	10(7.8)						
HBV education	No	30(24.4)	75(60.0)	45.393	<.001				
	Yes, but not fully understood	58(47.2)	45(36.0)						
	Yes	35(28.5)	5(4.0)						
Sources of information on HIV/AIDS*	Mass media	65(52.8)	94(73.4)	11.455	.001				
	Technical books	61(49.6)	15(11.7)			42.622	<.001		
	Friends	13(10.6)	13(10.2)					0.012	.921
	Lecture	79(64.2)	53(41.4)						
Sources of Information on Hepatitis B*	Mass media	49(39.8)	96(75.0)	31.789	<.001				
	Technical books	59(48.0)	16(12.5)			37.660	<.001		
	Friends	16(13.0)	19(14.8)					0.176	.675
	Lecture	68(55.3)	25(19.5)						
Blood & body fluid exposures (for 3rd & 4th-year students of nursing college)	Yes	29(30.9)							
	No	65(69.1)							

*Multiple responses

HBsAg=Hepatitis B surface antigen; HBsAb=Antibody to hepatitis B surface antigen; HBV=Hepatitis B virus

‘틀리다’와 ‘모르겠다’는 0점의 점수를 부여했다. HIV/AIDS 태도의 각 문항은 ‘매우 동의한다’ 5점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부정문항은 점수를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HIV/AIDS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6$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8$ 이었다.

2) B형 간염에 대한 지식 및 태도

B형 간염의 지식 및 태도 측정을 위해서 Sin과 Hong (1996)의 HIV/AIDS 도구에서 “HIV/AIDS”를 “B형 간염”으로 변경하고 내과 의사와 연구자를 포함한 전문가 그룹의 내용타당도를 확인한 Kim 등 (2014)의 연구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의 구성은 HIV/AIDS의 도구와 같이 지식 19문항, 태도 6문항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im 등(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계열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비교는 서술적 통계 방법과 카이제곱 분석(χ^2 -test)을 사용하였고,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계열 대학생의 HIV/AIDS와 B형 간염에 대한 지식, 태도 점수비교는

t-test를 사용하였다. 지식점수와 태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을, 일반적 특성에 따른 HIV/AIDS·B형 간염에 대한 지식 및 태도의 비교는 t-test과 일원분산 분석(ANOVA)을,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계열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계열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HIV/AIDS와 B형 간염의 교육경험 및 정보 입수 경로, B형 간염 항원/항체 유무 및 백신접종 상태와 간호대학생 3-4학년의 주사침에 의한 상해 또는 혈액/체액에의 노출경험은 표 1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고학년에서 참여자가 많았고($\chi^2 = 30.468, p < .001$), 대부분이 여성으로(122명, 99.2%), 비 간호계열과 차이를 보였다($\chi^2 = 42.520, p < .001$). B형 간염보균자의 경우 간호대학생 7.3%, 비 간호계열 대학생 8.6%로 두 그룹이 비슷한 수준이었고, 보균자인 것을 모르는 학생은 비 간호계열에서 많았다($\chi^2 = 12.118, p = .002$). B형 간염 항체가 있는 간호대학생(51명, 41.5%)이 비 간호계열 대학생(36명, 28.1%)보다 많았고, 항체 유무를 모르는 대상자는 비 간호계열에서 많았다($\chi^2 = 10.722, p = .005$). HIV/AIDS에 대한

Table 2.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HIV/AIDS and Hepatitis B (N=251)

Variables	Nursing college (N=123)	Non-nursing college (N=128)	t	p
	M±SD			
Knowledge of HIV/AIDS	14.17±3.14	11.27±3.08	7.404	<.001
Definition of HIV/AIDS	2.13±0.81	1.59±1.02	4.616	<.001
Signs and symptoms of HIV/AIDS	1.50±1.09	0.84±0.93	5.156	<.001
Transmission and prevention of HIV/AIDS	10.54±2.39	8.84±2.22	5.869	<.001
Attitudes of HIV/AIDS	16.25±2.62	15.02±2.88	3.530	<.001
Knowledge of hepatitis B	12.00±3.86	6.81±3.41	11.309	<.001
Definition of hepatitis B	2.02±0.91	1.09±0.93	8.023	<.001
Signs and symptoms of Hepatitis B	1.20±1.24	0.44±0.86	5.611	<.001
Transmission and prevention of HIV/AIDS	8.80±2.70	5.29±2.55	10.582	<.001
Attitudes of HIV/AIDS	16.97±3.01	15.83±3.04	2.985	.003

Table 3. Knowledge and Attitudes of HIV/AIDS according to Educational Experiences (N = 251)

Variables	Knowledge of HIV/AIDS			Attitudes of HIV/AIDS		
	Nursing college M±SD	Non-nursing college M±SD	F(p)	Nursing college M±SD	Non-nursing college M±SD	F(p)
HIV/AIDS	13.37±3.61	11.12±3.65	1.183 (.310)	15.11±2.18	14.88±2.78	0.568 (.568)
Education	13.66±3.12	11.15±2.79	b<c*	16.23±2.62	15.18±2.86	14.20±3.49
Yes ^c	15.38±2.62	12.70±3.27				

*Scheffe

Table 4. Knowledge and Attitudes of Haptitis B according to Related Variables (N = 251)

Variables	Knowledge of Hapatitis B			Attitudes of Hapatitis B		
	Nursing college M±SD	Non-nursing college M±SD	F(p)	Nursing college M±SD	Non-nursing college M±SD	F(p)
HBV	9.47±4.45	6.71±3.37	5.569 (.005)	15.67±2.78	15.92±2.93	0.348 (.707)
Education	11.95±3.36	6.47±3.03	a,b<c*	17.09±2.96	15.58±3.27	16.60±2.97
Yes ^c	14.29±2.57	11.60±4.39				
The states of	12.39±2.78	8.82±3.43	3.787 (.025)	17.00±2.96	16.82±2.68	0.642 (.528)
HBsAg	12.74±3.50	7.19±3.62	b>c*	17.37±2.95	15.77±2.75	15.70±3.36
Unawareness ^c	10.12±4.39	6.08±3.03				
The states of	13.47±2.72	7.47±3.38	2.863 (.061)	17.39±3.02	16.31±2.62	0.628 (.535)
HBsAb	12.57±3.74	7.77±3.83		17.80±2.66	15.55±3.19	15.67±3.21
Negativity ^b	9.83±4.21	6.17±3.19				
Unawareness ^c						
Vaccination	12.84±3.39	7.34±3.28	4.440 (.014)	17.15±2.89	16.23±2.50	1.168 (.314)
against	11.86±3.88	7.67±4.26	a/c	17.57±2.79	15.48±3.12	15.38±3.69
Hepatitis B	8.62±4.19	5.57±2.84				
Unawareness ^c						

*Scheffe

HBV =Hepatitis B virus; HBsAg=Hepatitis B surface antigen; HBsAb=Antibody to hepatitis B surface antigen

Table 5. Knowledge and Attitudes of HIV/AIDS and Hepatitis B according to Sources of Information (N=251)

Sources of Information	HIV/AIDS						Hepatitis B					
	Knowledge			Attitudes			Knowledge			Attitudes		
	M±SD	t(p)		M±SD	t(p)		M±SD	t(p)		M±SD	t(p)	
Mass media	Yes	12.33±3.51	2.219 (.027)	15.55±2.85	0.578 (.564)	8.21±4.27	4.968 (<.001)	16.26±3.00	0.750 (.454)			
	No	13.32±3.20		15.76±2.78		10.92±4.27		16.56±3.17				
Technical books	Yes	14.58±2.64	6.172 (<.001)	15.97±2.69	1.291 (.198)	12.01±3.91	6.657 (<.001)	17.27±2.69	3.012 (.003)			
	No	11.89±3.41		15.47±2.87		8.23±4.21		16.01±3.15				
Friends	Yes	12.77±3.37	0.126 (.900)	15.58±2.64	0.093 (.926)	9.46±4.03	0.249 (.888)	16.29±2.67	0.209 (.835)			
	No	12.68±3.44		15.63±2.84		9.34±4.54		16.40±3.14				
Lecture	Yes	13.33±3.01	3.195 (.002)	16.08±2.85	2.698 (.007)	11.40±4.13	5.913 (<.001)	16.86±3.26	1.885 (.061)			
	No	11.97±3.72		15.13±2.71		8.16±4.23		16.11±2.93				

Table 6. Knowledge and Attitudes of HIV/AIDS and Hepatitis B according to Experiences of Blood & Body fluid Exposures in 3rd & 4th-year students of Nursing college (N=94)

Variables	HIV/AIDS						Hepatitis B					
	Knowledge			Attitudes			Knowledge			Attitudes		
	M±SD	t(p)		M±SD	t(p)		M±SD	t(p)		M±SD	t(p)	
Blood & body fluid exposures	Yes	14.93±2.83	0.128 (.898)	16.17±2.74	0.701 (.485)	13.62±3.02	2.634 (.010)	17.28±2.89	0.100 (.921)			
	No	15.00±2.19		16.55±2.29		13.17±2.82		17.34±2.77				

교육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이 비 간호계열 대학생보다 많았으며($x^2=24.858, p<.001$), B형 간염에 대한 교육경험도 간호대학생이 비 간호계열 대학생보다 많았다($x^2=45.393, p<.001$). 간호대학생의 경우 '강연이나 특강'을 통하여 HIV/AIDS($x^2=13.102, p<.001$)와 B형 간염($x^2=34.378, p<.001$)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비 간호계열 학생에 비해 많았으며, 비 간호계열 대학생이 간호대학생보다 '잡지, TV, 라디오'를 통하여 HIV/AIDS($x^2=11.455, p=.001$)와 B형 간염($x^2=31.789, p<.001$)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더 많았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94명 중 29명(30.9%)의 학생이 주사침에 의한 상처와 혈액과 체액에 노출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계열 대학생의 HIV/AIDS와 B형 간염 지식 및 태도 비교와 지식 및 태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계열 대학생의 HIV/AIDS와 B형 간염에 대한 지식, 태도 점수는 표2와 같다. 간호대학생의 총 19문항으로 측정된 HIV/AIDS 지식은 14.17 ± 3.14 점, 6문항으로 측정된 태도는 16.25 ± 2.62 점이었고, B형 간염 지식은 12.00 ± 3.86 점, 태도는 16.97 ± 3.01 로 나타났다. 비 간호계열 대학생의 HIV/AIDS 지식은 11.27 ± 3.08 점, 태도는 15.02 ± 2.88 점이었고, B형 간염 지식은 6.81 ± 3.41 점, 태도는 15.83 ± 3.04 점으로 나타났다. HIV/AIDS지식은 간호대학생이 비 간호계열 대학생에 비하여 높았고($t=7.404, p<.001$), 태도 점수는 간호대학생이 비 간호계열 대학생보다 높아 HIV/AIDS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t=3.530, p<.001$). B형 간염 지식에서도 간호대학생이 비 간호계열 대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t=11.309, p<.001$), 태도 점수에서 간호대학생이 비 간호계열 대학생보다 높아 B형 간염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t=2.985, p=.003$).

두 그룹에서 모두 HIV/AIDS의 지식과 태도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HIV/AIDS 지식점수가 높은 학생이 HIV/AIDS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간호대 $r=.254, p=.005$; 비 간호계열 $r=.191, p=.030$). B형 간염의 지식과 태도에서도 두 그룹에서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간호대 $r=.317, p<.001$; 비 간호계열 $r=.242, p=.006$).

3. 교육경험에 따른 HIV/AIDS와 B형 간염의 지식 및 태도, B형 간염 항원/항체 유무 및 백신 접종 상태에 따른 B형 간염 지식 및 태도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계열 대학생의 HIV/AIDS 교육경험에 따른 HIV/AIDS 지식 및 태도는 표3과 같다. 간호대학생은 HIV/AIDS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을 받았지만 잘 모르는 학생보다 HIV/AIDS 지식 점수가 높았으나($F=4.685, p=.011$), 비 간호계열 대학생의 경우 HIV/AIDS 교육 여부에 따른 지식 점수에 차이가 없었다. 두 그룹 모두 HIV/AIDS 교육경험 여부에 따른 HIV/AIDS의 태도 차이가 없었다.

교육경험과 B형 간염 항원/항체 유무 및 백신 접종 상태에 따른 B형 간염 지식 및 태도는 표4와 같다. 간호대학생의 B형 간염 지식점수는 교육을 받은 학생, 받았지만 잘 모르는 학생, 받지 않은 학생 순이었다($F=15.601, p<.001$). 비 간호계열에서는 교육을 받은 경우가, 받았지만 잘 모르거나 받지 못한 학생보다 B형 간염 지식이 높았다($F=5.569, p=.005$). 간호대학생에서 B형 간염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없는 학생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F=4.766, p=.010$), 비 간호계열 대학생에서는 차이가 없었다($F=0.348, p=.707$).

간호대학생에서 B형 간염 보균자가 아닌 경우 자신이 보균자인지 여부를 잘 모르는 학생보다 B형 간염 지식이 높았고($F=5.863, p=.004$), 비 간호계열 대학생에서는 B형 간염 보균자가 자신이 보균자인지 여부를 잘 모르는 학생보다 B형 간염 지식이 높았다($F=3.787, p=.025$). 간호대학생에서 B형 간염 항체 여부를 아는 경우 모르는 학생보다 지식 점수가 높았으나($F=12.667, p<.001$), 비 간호계열 대학생에서는 항체유무의 인지에 따른 지식에 차이가 없었다. 간호대학생에서 B형 간염 항체 유무를 인지하는 학생이 불확실한 학생보다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나($F=4.810, p=.010$), 비 간호계열 학생에는 항체 유무 인지에 따

른 태도차이가 없었다. 두 그룹 모두에서 B형 간염 백신접종 여부를 아는 경우 모르는 학생보다 지식 점수가 높았다(간호대 $F=11.971$, $p<.001$; $F=4.440$, $p=.014$). 그러나 두 군에서 모두 B형 간염 백신접종 실시 유무에 따라서 B형 간염 태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정보입수 방법에 따른 HIV/AIDS와 B형 간염의 지식 및 태도

정보입수 방법에 따른 HIV/AIDS와 B형 간염의 지식 및 태도는 표5과 같다. HIV/AIDS나 B형 간염의 정보를 잡지, TV, 라디오를 통해 얻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HIV/AIDS 지식점수($t=2.219$, $p=.027$)와 B형 간염의 지식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t=4.968$, $p<.001$), 전문서적을 통해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HIV/AIDS 지식점수($t=6.172$, $p<.001$)와 B형 간염의 지식점수($t=6.657$, $p<.001$) 모두 높게 나타났고 강연이나 특강을 통해 정보를 얻은 경우도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HIV/AIDS 지식점수($t=3.195$, $p=.002$)와 B형 간염의 지식점수가 높았다($t=5.913$, $p<.001$). 강연이나 특강을 통해 HIV/AIDS 정보를 얻은 경우 태도가 긍정적이었고($t=2.698$, $p=.007$), 전문서적을 통해 B형 간염 정보를 얻은 경우 B형 간염 태도가 긍정적이었다($t=3.012$, $p=.003$).

5. 간호대학생의 주사침 자상 및 혈액, 체액에의 노출 경험 및 HIV/AIDS와 B형 간염의 지식 및 태도

3-4학년 간호대학생 중 주사침 자상 또는 혈액 및 체액에의 노출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B형 간염에 대한 지식점수가 자상 또는 노출 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의 점수보다 높았다($t=2.634$, $p=.010$). HIV/AIDS의 지식 및 태도와 B형 간염의 태도에는 주사침 자상 또는 혈액 및 체액에의 노출 경험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비 간호계열 대학생의 HIV/AIDS와 B형 간염의 지식 및 태도를 비교하고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B형 간염 백신접종을 한 학생과 B형 간염 항체가 있는 학생이 간호대학생에서 많았으며, B형 간염 보건자는 두 그룹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비 간호계열의 경우 본인이 보건자인지 잘 모르는 학생이 많았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간호대학 또는 임상실습기관의 정책으로 임상실습 전 B형 간염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B형 간염 항체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령 제31호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B형 간염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하여 관리하며, 이를 이관 받은 고등학교의 장은 당해 고등학생이 졸업할 때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Education Ministry Ordinance 31, 2014).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비 간호계열 대학생의 경우 본인이 보건자인지 잘 모르는 학생이 46.9%였고, B형 간염 항체 유무를 잘 모르는 학생이 54.7%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항원/항체 유무를 인지하는 학생들보다 B형 간염에 대한 지식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 간호계열 대학생의 B형 간염 지식점수(6.81점)가 HIV/AIDS의 지식점수(11.27점) 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B형 간염의 발생률이 높은 국내 젊은 층에서 B형 간염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일 연구에서, 본인이 B형 간염 보건자/면역자/예방접종 대상자임을 인지하는지 확인한 후 1년 뒤에 이에 따른 의사 권고사항 시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본인의 B형 간염 검사 결과를 인지했던 학생들에서 권고사항을 더 잘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Kim, Kim, & Lee, 2001). 특히,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여 감염성 질병에 대하여 안일한 대처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B형 간염 결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 대상자의 경우 적극적인 권고를 통해 의료인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HIV/AIDS와 B형 간염의 지식점수 모두 간호대학

생이 비 간호계열 대학생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태도 또한 HIV/AIDS와 B형 간염에서 점수가 높아 간호대학생이 비 간호계열 대학생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등(2014)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비 간호계열 대학생보다 HIV/AIDS와 B형 간염의 지식점수가 높고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치위생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Bae와 No (2012)의 연구에서도 이론교육을 받은 학생들에서 B형 간염에 대한 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에서 교과과정을 통한 HIV/AIDS 및 B형 간염의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식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HIV/AIDS와 B형 간염의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을 통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IV/AIDS와 B형 간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경우 강연이나 특강, 비 간호계열 대학생의 경우 '잡지, TV, 라디오'가 가장 많이 두 그룹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Sung (2008)의 연구에서 비 간호계열 학생들의 대부분이 HIV/AIDS에 대한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정보 입수 방법에 따른 HIV/AIDS와 B형 간염의 지식을 비교하였을 때, '잡지나 TV, 라디오'의 대중매체를 통해 HIV/AIDS와 B형 간염의 지식을 얻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점수가 오히려 낮았고, 강연이나 특강, 전문 서적을 통해 지식을 얻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지식점수가 높았다. 비 간호계열 대학생의 경우 HIV/AIDS 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HIV/AIDS 지식의 차이가 없었던 결과를 고려할 때 강연이나 특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여 효과적이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결과는 학교에서 HIV/AIDS 관련 정보를 얻은 학생의 지식점수가 학교에서 정보를 얻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Ahn et al., 2008; Kim, 1990). 정보입수 방법 중 HIV/AIDS에 대한 강연이나 특강과 B형 간염에 대한 전문서적만이 태도에 긍정적인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여(Ahn et al., 2008; Kim et al., 2014), 지식뿐만 아니라 태도의 개선에서도 '잡지, TV, 라디오'보다 강연이나 특강 및 전문서적이 효

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비 간호계열 대학생은 HIV/AIDS와 B형 간염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비교적 적었을 뿐만 아니라 정보입수 방법으로 가장 많이 꼽은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이 지식과 태도의 향상에 모두 비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Ungan와 Yanmon (2003)은 대중매체가 어떤 경고는 줄 수 있지만, 매체가 가진 여러 제한 때문에 충분한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부적합할 수 있어 교육적 효과에 한계가 있으며 강연이나 특강 등의 접근성이 높은 간호·의학계열에 비해 비 간호계열 대학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비 간호계열 대학생에게도 교과과정을 통한 집중적인 교육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Lee (2010)의 연구에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 교육프로그램 제공 후에 에이즈에 대한 지식이 향상되고, 편견이 감소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비디오 영상을 통하여 일반인들이 지각하지 못하는 사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례를 소개하여 민감성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에이즈 사진전을 통하여 에이즈 지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한 Kang, Kang, Sin과 Jang (2005)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홍보방법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고 감염성 질병에 대한 지식과 예방적 대처가 미흡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교육을 시도하고 효과를 검증하여 HIV/AIDS와 B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HIV/AIDS 및 B형 간염의 지식과 태도간의 관계에서 각각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지식점수가 높은 학생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B형 간염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Kim 등(2014)의 연구와 HIV/AIDS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차별의식 점수는 낮았다는 Oh (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와 비 간호계열에서 모두 HIV/AIDS의 교육경험 유무에 따라 HIV/AIDS 태도 차이가 없었고, 간호대학생만 B형 간염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의학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ung (2008)의 연구에서 교육경험에 따른 HIV/AIDS 태도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일치하여 태도 개선에 있어 현행 교육 방법의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간호학과에서 HIV/AIDS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간호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일차간호관리자로서 일반대상자에게 예방법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배움과 동시에 감염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옹호자의 역할을 배우기 위한 것이다(Ahn et al., 2008). Han, Cho, Kim과 Kim (2012)의 연구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를 기꺼이 수행하겠다는 에이즈 간호의도가 B형 간염의 간호의도보다 낮게 나타났고, 에이즈에 대한 태도가 에이즈 간호의도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며, 에이즈에 대한 태도는 지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지침들과 HIV/AIDS와 B형 간염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여, 개인 및 사회적 편견을 감소시키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 전략을 마련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간호대학생 3-4학년 학생 중 주사침 자상 또는 체액노출 경험이 있는 경우가 30.9%(29명)으로 Park 등(2010) 연구의 76.5%, Park, Lee, Kim과 Han (2005) 연구에서의 36.3%보다 적게 나타났다. Park 등(2010)의 연구에서는 '혈액 및 체액의 튀어나 주사침에 1번이라도 노출된 경험'을 물어 주사침 자상과 혈액 및 체액에의 노출의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문항을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므로, 본 연구와 Park 등(2005)의 연구에서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Park 등(2010)의 연구에서 노출과 관련된 임상수기 중 혈당 검사가 65.3%로 가장 많았고, 노출 상태를 의료진 등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89.3%에 달하였다. 혈당 검사는 임상실습이 이루어지는 병원에서 간호실습생들이 가장 흔하게 실습하게 되는 술기로, 사용하였던 란셋에 상해를 입는 경우 노출된 혈액의 양이 매우 적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혈액매개 감염성 질환에 대한 교육과 자상 후 보고 체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임상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 임상지도자들의 적절

한 감독아래 술기가 이루어지도록 임상실습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계열 대학생의 HIV/AIDS 및 B형 간염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간호대학생의 HIV/AIDS와 B형 간염의 지식점수가 비 간호계열 대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도 또한 간호대학생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군의 HIV/AIDS 및 B형 간염 관련 정보입수 경로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강연이나 특강, 전문서적이 가장 많았으나 비 간호계열 대학생은 TV, 잡지, 라디오가 가장 많았다. 강연이나 특강 또는 전문서적으로 HIV/AIDS나 B형 간염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 지식 점수가 더 높았고, 본인의 B형 간염 보균자 여부나 항체 유무를 인지하는 학생이 B형 간염 지식 점수가 더 높았다. 간호학과의 경우 주사침 자상이나 체액 노출 경험이 있는 학생에서 B형 간염 지식 점수가 더 높았다. HIV/AIDS와 B형 간염의 지식과 태도간의 관계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HIV/AIDS와 B형 간염의 지식점수가 높은 학생이 HIV/AIDS와 B형 간염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 모집단의 특성을 정확히 정의할 수 없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지 못함으로 더 많은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주사침 자상이나 체액 노출을 예방하여 안전하게 임상실습을 할 수 있도록 혈액매개 감염성 질환에 대한 교육과 자상 후 보고 체계 및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간호계열과 비 간호계열의 정보입수 방법이 상이하여 두 군의 지식과 태도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HIV/AIDS와 B형 간염에 대한 강연이나 특강 등의 전략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는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Ahn, H. M., Yoo, J. S., Park, C. G., & Kim, M. Y. (2008). HIV/AIDS-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2(1), 108-120.
-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1). Updated U.S. public health service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occupational exposures to HBV, HCV, and HIV and recommendations for post exposure prophylaxis.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29, 1-42.
- Education Ministry Ordinance 31. (2014). *School health screening rule*. Retrieved October 27, 2015, from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1722&efYd=20140303#0000>
- Han, J. S., Cho, H., Kim, Y., & Kim, Y. (2012). Nurses' knowledge, attitudes and nursing intention toward AIDS and chronic hepatitis B.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1(3), 201-208. <http://dx.doi.org/10.5807/kjohn.2012.21.3.201>
- Kang, H. S., Kang, K. H., Sin, S. R., & Jang, S. B. (2005). The effects of an AIDS photo exhibition on AIDS knowledge and attitude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9(2), 241-248.
- Kim, H. N., Bae, S. S., & No, H. J. (2012).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nd infection control behavior about Hepatitis B patient in health care-related major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13(1), 45-53.
- Kim, H. J., Kim, N. C. (2014). The status of blood and body fluid exposure and affecting factors among nursing students including knowledge, performance regarding standard precaution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15(3), 17-30.
- Kim, I. H., Kim, Y. M., & Lee, C. G. (2001). Hepatitis B examination and recognition change after 1 year in girls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22(8), 1271-1278.
- Kim, O. S., Choi, J. S., Jeong, J. S., Park, E. S., Yoon, S. W., Jung, S. Y., Jin, H. Y., & Kim, K. M. (2010). Survey of under-reporting rate and related factors after blood and body fluid exposure among hospital employe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2(5), 466-476.
- Kim, Y. H. (1990). A study on nursing colleg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AID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 124-135.
- Kim, Y. M., Han, J. S., & Lee, O. C. (2014). Knowledge,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HIV/AIDS in comparison with chronic hepatitis B among female nursing and non-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40(2), 31-39.
-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4, December). *HIV/AIDS statistics report*. Retrived September 9, 2015, from <http://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1785&inputYear=2013>
-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5, September). *Legal infectious disease occurrence report*. Retrived October 26, 2015, from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
-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 Korea federation for HIV/AIDS Prevention (2010, December). *National Survey on HIV/AIDS Knowledge, Attitudes, Beliefs, and Behaviors in the General Population*. Retrived September 9, 2015, from <http://www>.

- nih.go.kr/CDC/cms/cmsFileDownload.jsp?fileid=3445&cid=27713&fieldName=attach1&index=1
- Lee, J. K. (2010). Effects of AIDS education on knowledge, prejudice, susceptibility, severity and intention of safe sex behavior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4(2), 258-269.
- Oh, B. U. (2014).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about AIDS of social work students. *Journal of Human Rights Welfare*, 15(1), 53-75.
- Oh, H. S. & Choe, K. W. (2002). Descriptive study of reported bloodborne exposures in health care workers in a university hospital. *Korean Journal of Nosocomial Infection Control*, 7, 51-64.
- Park, J. H., Jun, H. K., Jeong, S. H., Hwang, J. H., Lee, C. S., & Lee, H. B. (2010). Nursing students' exposure to blood and body fluids in clinical practicum.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6(1), 70-75.
- Park, S. N., Lee, E. Y., Kim, G. M., & Han, S. J. (2005). Knowledge, compliance and levels of risk factor recognition for needle stick injuries in student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2(3), 337-346.
- Sin, Y. H. & Hong, Y. H. (1996). Colleg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AIDS in Pusan and Ulsan area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6(1), 33-42.
- Sohn, A., Moon, J. S., Shin, S., Chun, S., & Kim, S. (2008). Discriminatory attitudes towards person with HIV/AIDS (PWHAs) among adolescents in seoul, Korea.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23, 31-56.
- Sohn, A., Tabang, F., Moon, C. S., & Ko, S. D. (2009). Optimistic bias on HIV/AIDS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Korea.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25, 57-78.
- Statistics Korea (2013, September). causes of death statistics in 2013. Retrieved September 9, 2015,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30181
- Sung, M. H. (2008). Knowledge, attitudes and perceived vulnerability to AIDS of medical and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5(2), 221-228.
- Ungan, M. & Yamon, H. (2003). AIDS knowledge and educational needs of technical university students in Turkey.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51(2), 163-167. [http://dx.doi.org/10.1016/s0738-3991\(02\)00190-8](http://dx.doi.org/10.1016/s0738-3991(02)00190-8)
-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 *AIDS epidemic update* (pp. 5-48). Retrieved August 18, 2015, from http://data.unaids.org/pub/Report/2003/2003_epiupdate_en.pdf

ABSTRACT

A Study on Nursing and Non-Nursing Colleg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of HIV/AIDS and Hepatitis B*

Lee, Hyeong Suk (Assistant Professor,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Park, Haena (Undergraduate student,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Kim, Keun Hee (Undergraduate student,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Kim, Mi Ri (Undergraduate student,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Kim, Mingee (Undergraduate student,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Kim, Bit Na (Undergraduate student,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Kim, Eun Kyung (Undergraduate student,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Kim, Eun Yong (Undergraduate student,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Kim, Jin Hee (Undergraduate student,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Seong, Hye Jin (Undergraduate student,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Song, Misun (Undergraduate student,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scribe the knowledge and attitudes of nursing and non-nursing college students toward HIV/AIDS and Hepatitis B. **Methods:** A descriptive design was used for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123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128 non-nursing college students.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data collection. Descriptive statistics, χ^2 -test,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Nursing students showed a greater understanding and more favorable attitudes towards HIV/AIDS and hepatitis B than non-nursing college students. Most non-nursing college students learned about HIV/AIDS and hepatitis B from Mass Media. In contrast, many nursing college students learned about HIV/AIDS and hepatitis B from technical books and lecture. Students who learned from technical books and lecture showed a higher score for knowledge and more favorable attitudes regarding HIV/AIDS and hepatitis B.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school are crucial to enhancing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HIV/AIDS and Hepatitis B. A structured education program using strategies to improve attitudes is necessary for college students.

Key words : HIV/AIDS, Hepatitis B, Knowledge, Attitude

* This manuscript is a revision of 2015 student conference report of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